

레위기 개요

1. **레위기:** 레위는 일종의 제사장의 규칙과 의무를 담은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안내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첫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시작하는데, 이런 말씀이 레위기 안에 스무번 이상 나오는 것에 근거하여, 레위기의 저자가 모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레위는 주전 1200 – 1400 년 정도에 적혀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연도와 연관이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2. **레위기의 주된 목적:** 레위를 꿰뚫어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레위기 11:44-45 절**로 표현됩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 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3. **구성:** 레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과정 (1 장 – 10 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지침서에 해당하는 부분 (11 장 – 27 장) 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네 단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I. 희생 제물에 관한 규정 (1-7 장)
 - a. 번제 (Burnt offering) 에 관한 규정 (1 장 1 절-17 절)
 - b. 곡식제 (Grain offering) 에 관한 규정 (2 장)
 - c. 화목제 (Peace offering) 에 관한 규정 (3 장)
 - d. 속죄제 (Sin offering) 에 관한 규정 (4 장 1 절 – 5 장 13 절)
 - e. 속건제 (Guilt offering) 에 관한 규정 (5 장 14 절 – 6 장 7 절)
 - f.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례 (6 장 8 절 – 7 장 38 절)
 - II. 제사장 정결 예법 (8 장 – 10 장)
 - a.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임식 (8 장)
 - b. 아론의 첫 제사 (9 장)
 - c.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 (10 장, 나답과 아비후)
 - III.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 (11 장 – 15 장)
 - a. 음식에 관한 규정 (11 장)

- b. 출산과 산모에 관한 정결 규정 (12 장)
- c.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정 (13 장 - 14 장, 사람과 집)
- d. 사람을 정하게 의식 (15 장, 남자 - 여자 구분)

IV. 거룩함에 관한 규례 (16 장 - 25 장)

- a. 속죄일 (16 장)
- b. 제물을 잡는 방법과 피에 관한 규례 (17 장)
- c. 성관계에 관한 규례 (18 장)
- d. 사회법과 의식에 관한 법 (19 장)
- e.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죄들 (20 장)
- f.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21 장 - 22 장)
- g. 지켜야 할 절기와 축제들 (23 장 - 25 장)
- h. 언약의 축복과 저주 (26 장)
- i. 부록 - 서약과 헌물 (27 장)

4. 레위기 중요한 내용들:

- I. **거룩함 (Holiness):** 레위기의 주된 목적은 위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1 장-10 장)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11 장 - 27 장) 주를 이룹니다. 거룩함의 문제는 정함과 부정함에 연결이 되고, 죄나 부정한 것에 의해 오염이 된 사람이나 물건들이 의식을 통해 거룩하고 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II. **희생 제물 (Sacrifice):** 제물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그 당시 행해졌던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일신을 섬겼다는 것과 제사에 대한 모든 규정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감사를 드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바친 제물 (곡식제, 화목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있습니다. 희생제물중에 죄를 속하는 제물은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데 그 이유가 레위기 17 장 11 절에 나옵니다.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는 생명으로 값을 수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이 요구됩니다. 한가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제물을 통한 제사가 구원을 가져다 준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하게 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